



경기구독 | 로그인 | 회원가입 | 자유게시판

- Home
- 홈페이지 > 테니스뉴스 > [조간]테니스 '아웃 오심'이 더 많은 이유는
- 월간테니스코리아
- 테니스뉴스
- 대회일정/대진표
- 랭킹정보
- 연재기사
- 테니스코리아 칼럼
- 테니스동호회
- 동영상/슬라이드쇼
- 테니스에세이
- 포토갤러리
- 소핑몰
- 테니스인의 집
- 테니스자료실
- 관련사이트
- 로그인
- 기사검색
- GO
- 테니스동호회
- 인천신동아테니스회
- 구로구테니스연합회
- 화곡푸르지오테니스회
- 샛별한양테니스회
- e클럽
- 종일(Allday)클럽
- 용두테니스클럽
- 풀잎클럽
- 동호인시합일정
- 동호인시합일정
- 독자광장
- 자유게시판
- 사이트맵
- 회원가입
- HELP
- 경기구독/과월호
- 공지사항
- 한국 테니스 자료를 수집합니다
- 자유게시판에 동호인대회 공지 불가
- 필명제 도입
- 2008 테니스코리아 인터넷 기자
- 클럽 사이트 소개
- 2008상하이 마스터스컵 투어단 모집
- 월간테니스코리아 5월~6월 구독 만기자
- 온라인 동호인 클럽 실시
- 9월호부터 23일 발행
- 상하이투어단 참가자들에게

[조간]테니스 '아웃 오심'이 더 많은 이유는



조선닷컴
[사이언스인뉴스]테니스경기'아웃 오심'이 더 많은 이유는

테니스 경기에서는 공이 경기장 라인을 벗어났는지를 두고 판정 시비가 자주 일어난다. 그렇다면 공이 선을 벗어났다고 하는 아웃(out) 판정과, 안쪽에 떨어졌다고 보는 인(in) 판정 중, 어느 쪽에서 오심(誤審)이 더 자주 발생할까.

확률상 반반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웃 판정에서 더 오심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 능력에 내재된 오류 심판 판정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AP 때문이다.

◆0.1초 전의 과거를 보는 눈

사람이 사물을 본다는 것은 사물에서 반사된 빛이 망막에 맺히고 이 정보가 시신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뇌에서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망막에 맺힌 상이 뇌에서 인식되기까지는 0.1초 정도가 걸린다. 말하자면 우리는 늘 0.1초 이전의 세상을 보는 셈이다. 이 정도면 짧은 시간 같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물이라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수비수가 0.1초 전의 공만 보고 있다면 늘 공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의 뇌는 이 문제를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해결한다. 이를 테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물이라면 0.1초 뒤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때의 모습을 뇌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시각 정보 처리에서 나타나는 0.1초의 지연 현상을 0.1초 뒤의 장면을 예측하는 일종의 허상을 통해 보정하는 것이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휘트니(Whitney) 박사는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지 28일자에 발표한 논문에서 "테니스 경기의 오심 분석을 통해 인간 뇌의 예측 보정에 관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오심종류	횟수
out 오심	75
in 오심	15

연구진은 Wimbledon 테니스 경기에서 4000건의 사례를 임의로 선택한 뒤 오심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83건이 오심으로 밝혀졌다.

만약 심판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웃이든 인이든 오심은 반반에 가깝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70건의 오심이 아웃을 선언했을 때 발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 눈은 공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갔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면 공이 더 멀리 간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 위의 잔디를 굴러간 골프 공이 갑자기 홀컵에 빠졌을 때 이따금 공이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같은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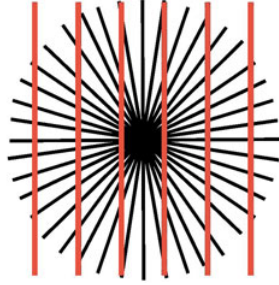
휘트니 박사는 "심판뿐 아니라 선수나 관중들도 같은 오류를 범한다"며 "판정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가능한 아웃 선언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심리학과 정상철 교수는 "움직이는 물체가 찰나에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의 이런 예측 보정은 대부분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능 덕분에 야구 선수의 슬라이딩 캐치와 테니스 선수의 멋진 백핸드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로봇이 테니스 심판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정 교수는 "아웃, 인 판정에만 국한하면 카메라 눈으로 판정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심판은 훨씬 다양한 시각정보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로봇이 인간 심판을 따라잡기는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인공시각을 연구하고 있는 고려대 이성환 교수도 "로봇의 눈은 인간처럼 중요한 정보는 고해상도로 처리하고 다른 정보는 저해상도로 보는 선택 능력이 없어 정보처리 속도가 훨씬 느리다"고 말했다.

▶ 사선이 모이는 점 주변의 수직선은 밖으로 휘어져 보인다. 사선이 점으로 수렴하면 우리 뇌는 앞으로 가는 장면으로 착각해 그때 나타나는 장면을 미리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 렌슬레어 공대 제공



◆ 착시(錯視)도 시각 처리 지연 탓

사물을 실제 모습과 달리 보는 착시(錯視)도 같은 원리로 설명되고 있다. 미국 렌슬레어 공대의 마크 찬기치(Changizi) 교수는 지난 5월 '인지 과학(Cognitive Science)'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심리학 교과서에 흔히 등장하는 착시는 우리 눈이 0.1초 뒤의 상황을 앞당겨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자전거 바퀴살처럼 직선이 한 점으로 모이면 그림에 수직으로 또 다른 선들을 그려 넣으면 수직선은 중심 부근에서 밖으로 휘어져 보인다.

찬기치 교수는 "사선이 한 점으로 모이면 SF영화에서 우주선이 순간이동을 할 때처럼 사람의 눈은 앞으로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며 "우리 뇌가 앞으로 나갔을 때의 모습을 예측해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수가 늘어진 길을 자동차로 달릴 때 가로수가 옆으로 휘어지면서 뒤로 밀려나는 것 역시 같은 현상이다.
이영완 기자

고뉴스

'골드슬램'과 함께 테니스 현장 체험 떠나자!



대한민국 테니스 꿈나무들의 경기도 보고, '골드슬램'이 주는 푸짐한 선물도 챙기자!

드래곤플라이는 자사가 개발하고 서비스 하는 리얼 테니스 온라인 게임 '골드슬램'이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 현장에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금일 밝혔다.

대한민국 테니스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대회는 'ITF 골드슬램 컵 국제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장충 테니스 코트장에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 까지 8일간 진행된다. 국제테니스연맹(ITF)과 대한테니스협회(KTA)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누구나 무료로 대회장 입장이 가능하다.

'골드슬램 컵 대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드래곤플라이는 대회 현장에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대회 현장에 마련된 '골드슬램' 체험존 부스를 방문해 간단한 회원인증 절차를 거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권 추첨을 통해 제주 뉴 아시아 호텔 숙박권 5매 및 월슨 테니스 라켓, 테니스 가방, 테니스 모자, 테니스 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체험존 방문자에게는 '골드슬램' 스트레스볼과 티셔츠도 무료로 증정한다.

드래곤플라이 마케팅 팀의 김범훈 부장은 "선선한 늦가을의 정취가 한껏 묻어나는 11월을 앞두고 대한민국 테니스 유망주들의 승리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게 이색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골드슬램 회원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1석2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당부의 말을 건넸다.
백봉삼 기자

연합뉴스

-벼룩시장배테니스- 전용선 · 김성관, 단식 본선 진출



전용선(264위)이 2008 벼룩시장배 부산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총상금 10만달러) 단식 예선을 통과했다.

전용선은 27일 부산 금정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예선 결승에서 다산 크라시운(336위.루마니아)에 2-1(6<3>-7 6-4 7-5) 역전승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했다.

세계랭킹 697위인 김성관(명지대)도 알렉세이 케드리우크(388위.카자흐스탄)를 2-0(6-2 6-2)으로 완파하고 본선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단식 본선 1회전에 나선 안재성(379위.한솔)은 파벨 스노블(176위.체코)에 0-2(1-6 1-6)로 저 탈락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랭킹에서 이형택(32.삼성증권)은 지난주 157위에서 22계단 오른 135위가 됐다.
김동찬 기자

조이뉴스24

[홍희경의 Kiss&Cry Zone]이형택이 있어 행복한 한국테니스 삼성증권배 우승 후 팬사인회서 인기 실감, '훈남' 이형택



시상식을 마친 후 단체 기념촬영에 나선 이형택과 이보 미나르

간간이 불어오는 강풍과 쌀쌀한 기온도 마다않고 올림픽공원 내 테니스 코트 주변에서 열린 사인회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다.

지난 26일 일요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2008 삼성증권배 국제남자 챌린저대회 단식 결승전을 끝낸 한국 테니스의 자존심 이형택(32, 157위)을 직접 만나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그 연령대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제 막 테니스를 시작했다는 초등학교생부터 희끗희끗한 백발을 날리며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는 노부부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보 미나르(105위, 체코)와의 결승전을 단 46분 만에 끝낸 이형택은 사인회 내내 밝은 미소를 머금고 팬들을 맞이했다. 같은 소속팀으로 은퇴를 선언한 조용정, 그리고 차세대 유망주 임규태 김선용도 이형택과 함께 사인회에 참석했지만 모든 시선은 역시 이형택에게로 쏠렸다.

"너무 멋져요, 스트로크를 배우고 싶어요. 직접 보니까 날아다니던데요?" 장난끼 가득한 어린 학생들은 필자의 마이크를 향해 돌진(?)하며 우승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공통적으로 꺼낸 이야기 중 하나는 일방적으로 끝난 경기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나 그게 좀 아쉬워요. 멋진 플레이를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긴 행렬 속에서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 한 명은 필자에게 4년 전 이형택과 찍은 것이



라며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 단식 결승전 시상식을 앞두고 있던 이형택 선수
 다. "영국에서 유학시절이던 4년 전 우연히 이형택 선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에 사인 받으려고 왔어요." 지금보다 젊
 어(?)보이는 이형택과 그 청년이 밝게 웃으며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한 사진
 이었는데 둘 다 썩 잘 나온 듯 보였다.

"그 때도 이형택 선수 꽤 유명했었는데, 제가 유학생이라며 인사하니까 친절
 하게 대해 주시고 샌드위치도 사주셨어요. 그 날 이후 팬 클럽에 가입하고 관
 심있게 지켜보게 되었어요. 오늘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 듣고 망먹고 왔
 죠. 이 사진 보여 드리면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네요.(웃음)"



두툼한 자켓을 챙겨입고 사인회에 참석한 이형택 선수

"맞아요. 이형택 선수 사람 참 좋죠? 오늘 만나면 무슨 이야기할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네요." 필자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이 밀려
 왔다. "요즘 좀 부진한 거 같은데 오늘 우승을 계기로 다시 좋은 성적 내고 힘
 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몇 년은 더 선수 생활 하셔야죠."

남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평범한 바람을 전했다. 그 청년에게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먼 타국에서의 짧은 인연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할 이 청년도 믿
 음직했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승으로 보답한 이형택도 이날 따라 왠지
 더 멋져 보였다.
 흥희정 객원기자

정리=이다영 기자

2008-10-28 10:00

나도 한마디

확인

< 이전 페이지로

기사 목록

▲ top

정기구독 | 광고안내 | 공지사항 | 회사소개

Quick Link
 Tenniskorea
 Info.

기사 검색 - 테니스동호회 - 대회일정 - 테니스쇼핑몰
 월간테니스코리아 - 테니스뉴스 - 테니스클리닉
 회원가입 - 이용약관 - 사이트맵 - 회원정보수정

테니스코리아
 tennis.co.kr

1. 상호 (주) 미디어월 서울지점 2. 대표자 - 주원석외 3인
3. 주소 - 우)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31-7 봉우빌딩 5층
4. 사업자등록번호 - 105-85-26923 5. 통신판매신고번호 - 마포 제2436호
6. Tel No. : 02-2263-5210 7. FAX NO : 02-561-7880
8. 담당자 E-MAIL : tennis@tennis.co.kr



Copyright © 2000-2006 TennisKorea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reated by Mediawill-tech Co.ltd



Subscriptions | Log in | Register | Donations

- Home
- 주간테니스코리아
- 테니스뉴스
- 대회일정/대진표
- 랭킹정보
- 연재기사
- 테니스코리아 칼럼
- 테니스동호회
- 동영상/슬라이드쇼
- 테니스에세이
- 포토갤러리
- 쇼핑몰
- 테니스인의 집
- 테니스자료실
- 관련사이트
- 로그인
- 기사검색
- GO

Home > Tennis News > [morning] tennis' coming out 'because there are more

[Morning] tennis' coming out 'because there are more



ArriveNet

[Science in the news] tennis match 'coming out' because there are more

The ball ticked off the field in a match to the line frequently happens over the decision. If so, that the ball was way off the line-out (out) a decision and dropped in to see the inside of the (in) of the decision, which coming from the (误审) want to occur more frequently.

▲ "Anna, the referee is not wrong." Wimbledon 2000 Anna Kournikova in the tournament during a game in the chujjeonhan Eoyjeopda is looking to the referee decision. / 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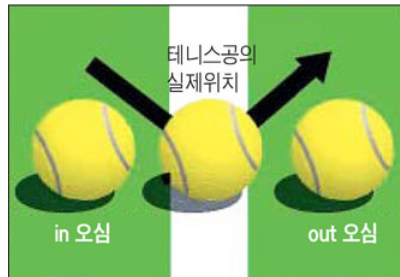
But in fact, the decision should be half hwakryulsang more coming out this jatadeon said. It's not to judge the quality of human error is inherent in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power.

◆ 0.1 eyes looking at the past before the cho

The things people see things in the reflected light to the retina and optic nerve in the final maethigo this information to the brain is recognized. But the retina to the brain as a prize maethin takes about 0.1 seconds till. I mean, we always see the world, said the previous 0.1 seconds. If this is a short period of time, but the problem will be fast moving objects. For example, baseball is in the defender gongman 0.1 seconds before the ball all the time, you will not be missed.

The human brain is designed to predict the future of this issue will be resolved. If things such as moving in one direction, even after 0.1 seconds is considered in the same direction, and then move to recognize the will of the brain. In other words, that 0.1-second delay in processing visual information, 0.1 seconds behind the scenes to predict the phenomenon that is some kind of correction heosang through.

Davis, Calif., psychologist David Whitney of the United States (Whitney), Dr. 'Current Bye olroji (Current Biology)' in the paper's July 28 "to match the human brain predict the coming of the analysis found evidence of compensation" He said.



Researchers in the 4000 Wimbledon tennis match coming whether the case was randomly selected. Analysis of 83 cases turned out to be coming.

If the judge does not have a biased view, you should be out, or inyeideun will be coming closer to the half. But this is actually coming out of 70 cases when the declaration said. According to researchers in the same direction, we still got the ball in your eyes because, in an ambiguous situation, as far as the ball will be more. All of a sudden the ball above the hole green grass golf gulreogan cup, the ball sometimes when you fall, which looks like going forward is the same phenomenon.

Dr. Whitney ", as well as players and the fans, referee beomhanda the same error" and "When you raise a problem with the decision to focus on the effects, if possible, would be declared out," he s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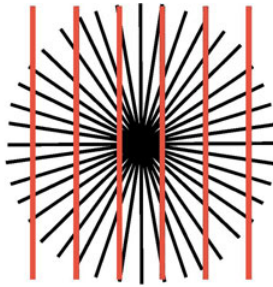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f psychology and jeongsangcheol "If you change the direction of a moving object in the moment almost no compensation because most of our eye this prediction is right," he said. Thanks to the sliding catch of baseball players and tennis players will be able to have a good backhand.

If so, it is better to see the referee to be a tennis robot. The professor "out, a decision that limited the camera's eye, correct decision, but the jury's decision is much different points of view, because the robot jonghaphae information will not be able to catch up with a human referee," he said. And the artificial vision research professor

- 테니스동호회
 - The Shindonga tensesuhoec
 - Guro-gu, the Association of Tennis
 - Hwagok pureujioh tensesuhoec
 - Hanyang stars tensesuhoec
 - e club
 - All day (Allday) Club
 - Yongdu Tennis Club
 - Leaf club
- 동호인시합일정
- 동호인 시합일정
- 독자광장
 - Free Board
 - Site Map
 - Membership
 - HELP
 - A regular subscription / Archive
- 공지사항
 - South Korea to collect feed tennis
 - Donations to non-amateur tournament bulletin
 - The introduction of pilmyeongie
 - 2008 Korea Internet news tennis
 - Club About this site
 - 2008 Shanghai Masters for tueodan
 - May-June monthly subscription mangija tennis Korea
 - Clinic conducted online amateur
 - 9, issued 23 days from the issue of
 - Participants not you sanghayitueodan

at Korea University yiseonghwan "like a robot's eyes to important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 a high-resolution low-resolution do not have the ability to choose to see a much slower speed of information processing," he said.

This gathering of the vertical lines around the Line of Fire ▶ points out, is winding. This points to an angled shot converge in the future, our brain chakgakhae because I recognize in advance that the scene is a phenomenon that appears. / The University provides rensulreoo



◆ illusion (错觉) because of the visual processing delays

Unlike a real look at things like an optical illusion (错觉) is explained by the same principles. Mark of the University of rensulreoo chaengiji (Changizi) in May last of the 'Cognitive Science (Cognitive Science)' in the paper whether the "psychology textbook is an optical illusion that often come after a 0.1 seconds ahead our eyes Because the recognition," he said.

For example, a point a straight line, like a bicycle wheel-year-old in the picture together, drawing vertical lines to put the other out in a vertical line winding around the center said.

Chaengiji of the "Line of Fire is a gathering point at this moment to move the ship to SF in the movie as I feel people's eyes will be going forward" and "we recognize the brain to predict the future, when symptoms have gone," He said. Tree-lined road when a car ran into the side of trees bent back as the same phenomenon is also protruding.

Yiyoungwan reporter

Gonyuseu

'Gold Slam' Let's get out of and experience with the tennis scene!



The report of tennis kkumnamu Republic of Korea, 'Gold Slam' is not a gift chaengija!

And the development of the Dragon Fly, its online gaming service real tennis' Gold Slim's Tennis Association, 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Junior Tennis Championships today at the scene said up to a promotional event.

Tennis Republic of Korea's futur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jimeojil kkumnamu designed to give each and every time, 'ITF Gold Cup International Junior Tennis Championships Slam' in the name of a tennis court in Seoul, Jangchung October 26 to November 2 at 8 Doenda the day.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ITF) and the Tennis Association (KTA) to host the tournament will be held for the duration of the tournament with free entry to the President.

'Gold Slam Cup' lives in the name Dragon Fly event of the competition, prizes at the scene was rich. The event is Oct. 27 and 28 days in the field yangilgan designed the 'Gold Slam' cheheomjon to visit the booth to participate in a simple member, you can go through the activation process.

Participants of the event by drawing gyeongpungwon hotel stays 5 at the New Asia-sheet and Wilson tennis rackets, tennis bags, tennis hat, tennis ball, and a variety of prizes, for cheheomjon visitors' Gold Slam 'view, and T-shirts and stress Will be presented free of charge.

Dragon Fly gimbeomhun team's director of marketing, the "atmosphere of cool Late autumn is the energy muteona 11 months before the Republic of Korea Open tennis hot prospect for the victory to feel at the scene said the unique event," the "Gold Slam members of the Group 2 event over a three to be able to enjoy the pleasure to

wish "gave the words of advice.
Baekbongsam reporter

Union News

- Flea sijangbae tennis - Chun Woong-sun and gimseonggwan, qualified for the finals match



Chun Woong-sun (above 264), the 2008 Pusan International Men's Challenger tennis tournament sijangbae fleas (total prize of 100,000 U.S. dollars) has passed the preliminary match.

Chun Woong-sun on the tennis court on June 27 at the Geumjung the first qualifying match in the final dasyan Kra siun (above 336. Romania) 2-1 (6 <3> -7, 6-4, 7-5) was the game winner in the final .

No. 697 world ranking gimseonggwan (Myongji University) and Alexei kedouriwookeu (above 388. Kazakhstan), 2-0 (6-2 6-2), and the final to win the final.

However, in the singles finals after a round of anjaeseong (above 379. Hansol), the Pavel seunobeul (above 176. Czech Republic) 0-2 (1-6, 1-6) has lost out.

The new male pro tennis (ATP) rankings in the Lee Hyung-taik (32. Samsung Securities) last week, led by 157 on the 22 stairs at 135.
Gimdongchan reporter

Joey News 24

[Honghuijeong of the Kiss & Cry Zone] happy South Korea's Lee Hyung-taik tennis After winning the paensainhoeseo popular jeunggwonbae realized, 'hunnam' Lee



시상식을 마친 후 단체 기념촬영에 나선 이형택과 이보 미나르

Occasional strong winds and chilly temperatures buleoohneun Olympic Park tennis courts around the madaango signing long to see the end of the line were linked.

Open a little over the past 2 pm time on Sunday, 26. The International Men's Challenger in 2008 jeunggwonbae tennis singles final at the end of the pride of South Korea Lee Hyung-taik (32, 157 above) to meet directly with people who want to sign jangsajin had to make.

The age group was also varies. I just started playing tennis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iting for the order from the gray and gray-haired and quiet nobubu of nalrimyeo was able to see. Look minareu (105 above, the Czech Republic), with only the final 46 minutes after Lee finished signing all the fans welcomed with a smile bright. Cho Yoon-jeong, such as retiring as his team, and Lee Hyung-taik, and uses the next generation of promising young players signing Kim imgyutae attend all the attention, but also toward ssolryeotda Lee Hyung-taik.

"It's pretty cool. I want to learn about stroke. I saw myself fly around it?" Mike and I filled jangnankki hurtling toward young students (?), And to win jeonhaetgo congratulatory message, the same one-sided story out of the game was over.



"Sorry, but it's over too soon. I could have done a great player and would have more time to see."



단식 결승권 시상식을 앞두고 있던 이형택 선수

One in a long procession of young people seems to be in his late 20s, I was taken to be 4 years ago, Lee and at least one out of the picture said. "Studying in the UK was 4 years ago when I met him once by chance a player's Lee Hyung-taik. Jjikeotdeon with that kind of picture. I'm fishing for the cause of death." We are young (?) Lee Hyung-taik, and the young man seems to pose a bright smile, natural photo was taken from both seemed very well.

"I was also a big player Lee Hyung-taik, I say the students taking the sandwich to be nice because you did 4 weeks. On that day to sign up for the fan club was watching with interest. Mammeokgo hear the news that came in the final today. This To show photos to remember the figure, I do not know me (laughs). "



두툼한 자켓을 챙겨 입고 사인회에 참석한 이형택 선수

"That's right. Lee, who very good players today talk to you know what you think about it when I see you see? Doesyeoteumyeon good times would be nice." I do not know milryeowatda ppudeuthami. "These days I feel like I'm weak again today to win the cup for him and I need to 내시면. Will have to play a few more years."

Others spoke with the wind average is not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I feel that the youth ought to be serious. Did not forget the other in a long treasured keeping short bond will take this young man, but without a reliable win bodaphan Well, it's more the great day, Lee said.
Guest reporter honghuijeong

Cleanup = yidayoung reporter

2008-10-28 10:00

I say

확인

< to the previous page

Article list

▲ top

Subscriptions | Advertisement Information | Information | About Us

Quick Link Article Search - tennis club - the schedule - Tennis Store
Tenniskorea Monthly tennis Korea - Tennis News - tennis clinic
Info. Sign Up - Terms and Conditions - Site Map - Modify information

1. Mutual (Day) midieowil the point 2.'s Representative - in 3 juwonseokoe
3. Address - right), Jung-gu, Seoul 100-391 jangchungdong 1 Building, 5th Floor bongwoo 31-7
4.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105-85-26923 5. Telecommunications sales license number - 2436, Mapo my hotel
6. Tel No. : 02-2263-5210 7. FAX NO: 02-561-7880
8. Contact E-MAIL. : Tennis@tennis.co.kr



Copyright © 2000-2006 TennisKorea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reated by Mediawill-tech Co.ltd